



**UN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

[www.unist.ac.kr](http://www.unist.ac.kr) 689-7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 발행인 총장 조무제 • 발행일 2010년 3월 • 발행처 기획국제교류팀 • TEL 052-217-1144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Newsletter  
Spring 2010 **Vol.1**

# UNIST

시작

따뜻함과 화사함으로 울산과기대 새학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시인 랭보는

“새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하늘을 날 때도, 지저귌 때도 아니다.  
새가 날기 위해 깃을 펼 때, 깃털이 마치 항구에서 돛단배가 출발하려고  
돛을 펴는 것과 같이 일어설 때 그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시작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2기생들을 맞이한  
UNIST가 다시 힘차게 2010년을 시작합니다.



## CONTENTS

### Power Interview

04 조무제 총장

### Cover Story

06 제2회 입학식

08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0 반갑습니다 2010새내기들과의 만남

### Research & Education

12 Technology & Trend 전기자동차

14 Professor's Column Prof. Marc Madou

16 Student's Column Muhammad Fawad, Swati

17 Global Leadership S-oil CEO 초청특강

### Unique UNIST

18 선진교육환경

### UNIST Culture

20 UNIST Family 스키 캠프

22 UNIST Club 힙합동아리 Epidemic

23 Culture Global Friendship

### UNIST News

24 News

26 UNIST People 학생홍보대사

27 발전기금 안내

---

울산과기대의 소식을 담은 소식지 UNIST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  
은 받는 분의 성함과 주소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UNIST 기획국제교류팀 담당자 : [sej113@unist.ac.kr](mailto:sej113@unist.ac.kr)



# UNIST 학생으로서 공지와 자부심을 갖자

조무제 총장과 학생홍보대사의 만남

“융합+창의+글로벌=UNIST입니다.”  
UNIST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학생들의 돌발적인 질문에  
UNIST 조무제 총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간단명료한 대답을 주었다.  
그만큼 목표하는 바가 뚜렷하고  
그 비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 개교하는 학교에 몸담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상대학교에서 30년간의 교수와 4년간의 총장을 경험했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석사 57명, 박사 27명을 길러냈고 현직 대학교수만 16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KAIST 교수도 있고 미국 Wisconsin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총장시절, 국내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Purdue대학과 공동박사학위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본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완성된 대학을 변화시키는데 한계를 느꼈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신설대학의 총장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만들 수 있겠다는 꿈을 꾸어 왔는데 그 꿈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 학교의 풍광이 아늑하고 고즈넉합니다

우리 UNIST가 위치한 곳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입니다. 야외공연장 뒤편에 위치한 묘소가 최근 끝난 KBS 드라마 '명가'에 나오는 경주 최부자집의 시조인 정무공 최진립 장군 묘소이고, 대학 본부 맞은편의 산봉우리가 조선 9대 성종 임금의 딸인 경숙옹주의 태가 묻혀있는 태봉산입니다. 예로부터 왕실에서는 왕실의 번영과 왕실자손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명산에 그들의 태를 묻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말 KTX역이 완공되면 우리 캠퍼스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 마스터플랜상의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관, 자연과학관, 공학1·2호관, 테크노경영관, 학술정보관, 학생생활관, 실내체육관, 기숙사, 교수아파트, 야외공연장 등 당초 계획된 공사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UNIST 설계의 기본 방향은 친환경캠퍼스, 유비쿼터스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KT와 손잡고 국내대학 중 최초로 모바일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연구장비도 세계적 수준으로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공동실험관에 비치된 전자현미경은 국내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 개교시의 목표와 1년이 지난 지금의 성과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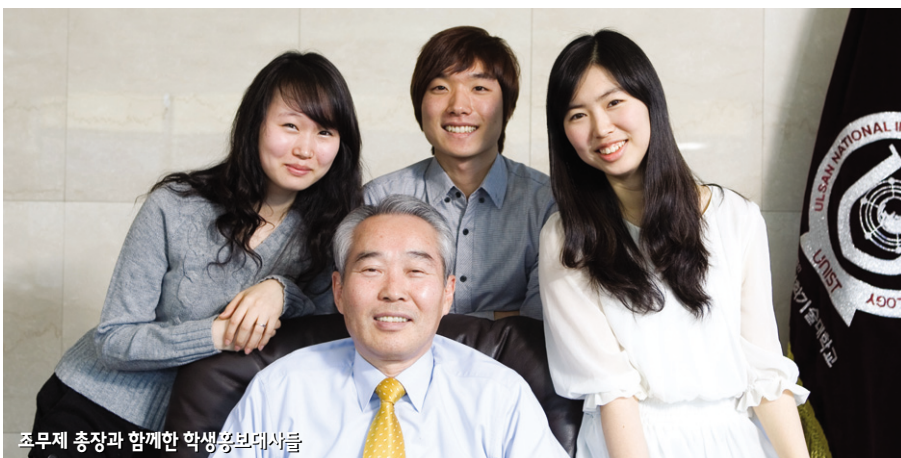
우리 UNIST의 목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 글로벌 리더양성과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과학기술 구현을 통해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교수초빙, 우수한 학생유치, 세계적인 교육 및 연구인프라 구축입니다. 개교 첫 해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에 2과제나 선정되어 향후 5년간 208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비롯해서 신성장동력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18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우리대학 교수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대학 중 처음으로 시작한 100% 영어강의가 1년 만에 정착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UNIST 학생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정까지 개방하던 도서관을 새벽 2시에서 다시 24시간 개방하도록 학생들이 요구했을때 다른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학업열기를 보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재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 UNIST 학생이라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무엇을 이루고자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가 있어야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UNIST는 100% 영어로 강의하는 국내 최초의 대학, LMS를 통한 창의적 강의 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유일의 대학, 융합복수트랙 이수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융합교육을 하는 국내유일의 대학, 세계최고수준의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 FMC 기반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캠퍼스를 구축한 국내유일의 대학, 전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학,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최고수준의 체육단련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 등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둘째,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꿈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본인이 경상대학교 교수시절 지도한 학생 중 고성농고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Stanford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면서 Nature, Science, Cell에 연이어 논문을 발표하고 지금 KAIST 교수가 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꿈을 갖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UNIST 캠퍼스에는 각각 디자인이 다른 9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들 다리에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미래의 아인슈타인, 미래의 에디슨, 미래의 빌게이츠가 나오면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이들 다리가 자기고유의 이름을 가질 날을 기대해봅니다.



조무제 총장과 함께한 학생홍보대사들

## {Epilogue}

## UNIST 가족愛



UNIST는 교직원 식당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교수, 직원, 학생들이 함께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 밥을 함께 먹으며 학업 뿐 아니라 이런 저런 일상 이야기도 나누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이색적이었다. 조무제 총장은 학생홍보대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학생홍보대사들도 내부 구성원과 비전 공유를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담당 선생님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모교의 비전과 추진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적인 공부도 당부했다.

신분으로는 총장과 학생의 관계였지만 이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할아버지와 손녀 손녀들의 모습이었다. 조무제 총장은 학생홍보대사들에게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창의적인 과학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폰 '아이폰'과 3D 입체영화 '아바타'의 성공을 예로 들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인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UNIST의 학생들을 의미하는 UNI-STAR답게 빛나는 별처럼 꿈을 크게 가지도록 가르치겠다고 했다. 또, 꿈은 꾸어야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꿈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큰 꿈을 먼저 꾸라는 조언을 했다.



#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새내기들의 함성

## 2010학년도 입학식, 2학년 재학생 영어로 사회 진행

지난 3월 2일, 연휴가 지난 UNIST 교정은 이른 아침부터 활력이 넘쳤다. UNIST 실내체육관에서 2010학년도 학사과정 신입생 741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입학식을 가진 것. 입학식 전에 학교에 도착한 입학생 가족들은 학교 곳곳을 둘러보면서 안락하면서도 첨단 시스템을 갖춘 UNIST 모습에 한층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였다. 총장님의 환영사에 이어 각계각층의 축사, 학교생활 안내 등이 이어지는 동안 신입생들은 내내 상기된 표정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새로운 활력이 흘러 넘쳤던 입학식 현장으로 가보자.

### {Brief News}

#### 모집정원 8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

UNIST가 지난해 역사적인 개교를 선언한 이후로 두 번째 신입생을 맞았다. 2010년도에는 전체 모집정원의 8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였다. 이 중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를 포함한 특목고 출신비율이 약 16.5%를 차지하고, 일반고 출신 학생들도 전국 상위 3%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0.9%, 부산·경남 24.7%, 울산 10.7%, 기타 33.7%의 분포를 나타냈다.



- ① 제2회 입학식 전경
- ② 신입생 대표 선서
- ③ 재학생 홍보대사의 사회
- ④ 교수 및 학사행렬

# 환 UNIST 2010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영

2010. 2. 17(수) ~ 2. 19(금) UNIST



## 2010년 새내기들 UNI-STAR로 빛나다

### 2010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UNIST는 학생들을 UNIST의 별, UNI-STAR라고 부른다. 학교는 새로운 UNI-STAR들에게 UNIST 학생으로서의 자긍심, 소속감 배양 및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신입생 뿐 아니라 교수진, 선배들이 대거 참여하며 함께 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가족들을 맞는 UNIST 사람들의 따뜻한 행사였다. 지난 2월 17일~19일에 신입생, 재학생, 교직원 등 총 860여 명이 참여해 열린 2박 3일간의 열띤 현장으로 가보자.



- ①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을 알린 총장 환영사
- ②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조윤경 교수 특강
- ③ 지도교수, 재학생들과 함께 한 조별 활동시간
- ④ 학생홍보대사들의 지도로 함께 배운 교가
- ⑤ 신입생들의 장기자랑
- ⑥ 재학생들의 축하공연



# 유니크한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 2010학년도 새내기들과의 만남

새로운 가족들을 맞아 활기찬 3월의 UNIST 캠퍼스. 2010학년도 2기 새내기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학교 곳곳을 다니며 공간 익히기에 분주하다. UNIST의 교수님과 재학생이 대학생이 된 설레임이 가득하고 UNIST에 궁금한 것들이 많은 새내기들을 만나 요모조모 UNIST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환경에너지공학부 **방인철** 교수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2학년 **이승일**

**모두들 반갑습니다!**

**방인철 교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니 내 기분도 좋아진다. UNIST를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심지희 학생** 저는 100% 영어수업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어요. 요즘 분야를 막론하고 영어가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방인철 교수** 그래, 맞아. 국내 유일 100% 영어 강의를 한다는 비전을 가진 UNIST에 나 스스로도 큰 매력을 느꼈지. 국내 우수 대학들도 70% 정도 채택하는 수준이거든.

**전성훈 학생** 저는 융합학문을 추구한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과학과 연관된 경영컨설팅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저의 꿈을 실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 바로 UNIST였어요.

**방인철 교수** 성훈이 얘기대로 공학계열 학생들이 경영을 알 수 있고, 경영계열 학생들이 공학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학만의 큰 장점이야. 현대 사회에서 공학과 경영은 뗄 수 없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니와 세계적으로 보자면 융합적인 사고관이 필요하거든. 면접을 치러보니 많은 지원자들이 우리의 융합적인, 유니크한 학생으로서의 포부가 커서 매우

즐거웠어. 지희와 성훈이가 우리 대학의 강점들을 콕콕 짚어줘 뿌듯하네.

**이승일 학생** 1학년 때에는 기초 과목들이 많아서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2학년이 되어 전공을 선택해 이제 제가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려고 하니 사실 설렙니다. 세계에서 통하는 지식이라면 끝도 없이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정말 많이 시켜주실 건가요?

**방인철 교수** 물론이지. 그것도 영어로. 이제 기초 소양은 쌓았으니 본격적인 전공의 세계에 들어온 거야. UNIST 학생들은 모든 것을 100% 영어로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 뿌리를 내린다면 해당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어.

**전성훈 학생** 정말 영어 사용 정도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 영어를 쓰나요? 어떤 교수님께 영어로 물으면 답을 주고 한글로 물으면 답을 안 해준다는 얘기까지를 들었는데.

**방인철 교수** 모든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하고 질문도 영어로 답변도 영어를 사용해. 모든 과제와 퀴즈 등도 모두 영어를 써야 하지. 과학은 세계 보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면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심지희 학생** 우리 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UNIST 학생들은 모이면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자연스럽게 쳐



경영계열 1학년 심지희

이공계열 1학년 전성훈

다보게 된다고.

**방인철 교수** 우리 대학의 또 하나 강점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나중에 생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는 거야. 가장 최신의 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어. 시대를 리드하는 과학기술을 익히는 데에 그만큼 좋은 환경인거야.

**전성훈 학생** 학부생들도 활용할 수 있나요?

**방인철 교수** 학부생들도 2학년 때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 실험 실습을 많이 한 과학도 학생들도 많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지. 1학년 학생들도 방학 기간에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어.

**이승일 학생** 지금은 다 지어졌지만 작년에는 건물이 4개 밖에 없어서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만 하는 재수학원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어. 그런데 그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매일 유사한 동선으로 같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우리만의 가족애를 더 돈독히 해주었기 때문이지. 난 과학도생이라 사실 1학년 때 과정을 이미 거의 배웠어. 그런데 그 과목들을 처음 배우는 인문계 출신 동기들이 더 잘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공부에 열심인 동기들을 보면서 자만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됐지. 또 서울권에

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험 1주일 전까지는 술집이다 클럽이다 해서 놀다가 1주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 부럽기도 했는데 그렇게 학점 관리 위주로 공부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인재로 클 수 있을까 생각하면 회의적이기도 해. UNIST는 전원 기숙사 생활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또 우리만의 낭만이 있어. 너희들도 차차 알게 될 거야. 난 올해 전공으로 들어가니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첫 후배들 밥도 많이 사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아무튼 선후배간의 의리와 정 하나는 끝내주는 UNIST를 전통으로 만들려고 해. 이런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1기생들 모두가 하고 있어.

**방인철 교수** 1기생들은 외롭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권임을 감안할 때 선배가 없기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학생 자치적인 활동을 제안하고 스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 참 보기 좋아. 학생들의 권리를 밝고 건강하게 사용해서 무척 대견스럽지. 2기생들도 선배들과 함께 창의적인 Uni-Star로 만들 수 있게 잘 해보자.

**심지희 학생** UNIST 입학에 결정했을 때에 1년은 이 악물고 재수한다는 느낌으로 학교생활을 하자고 다짐했어요. 생소한 분야의 학문을 영어로 배워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처럼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날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듭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할 테니 많이 도와주세요!

**전성훈 학생** 신생 학교이기 때문에 UNIST는 인지도 면에서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UNIST를 널리 알려야 하는 총대를 제가 메게 되었어요. UNIST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이제 제가 직접 증명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 잘 배우고 선후배님들과 함께 나만의 전공을 살려서 유니크한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모두들 UNIST 파이팅!**



# 전기자동차의 미래

## UNIST 기술사업화센터 산학협력전담 박화용 교수

전기자동차는 100% 전기의 힘으로 자동차가 구동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축전지가 자동차에 들어가야 하며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성공여부는 이 2차 전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연기관의 차와는 다른 방식의 전기 충전소 인프라 구축, 급속 충전 방식 달성을 이루어야 하며 충전으로 최대한의 주행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 전기자동차의 개념

전기자동차란, 전기를 주된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통칭한다.

#### 1) Electric Vehicle (EV)



동력원을 Battery로만 하고, 플러그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자동차.

예) GM EV1

#### 2) Hybrid EV (HEV)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로 저속 구간, 시동, 제동 부분에서 자동차를 구동시키고 이를 제외한 구간에서는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단 플러그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다.

예) TOYOTA Prius (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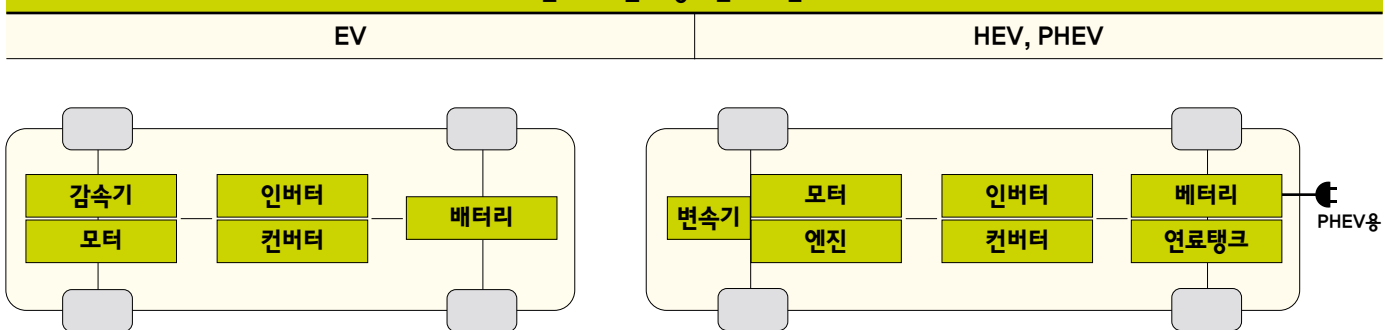
#### 3) Plug-in Hybrid EV (PHE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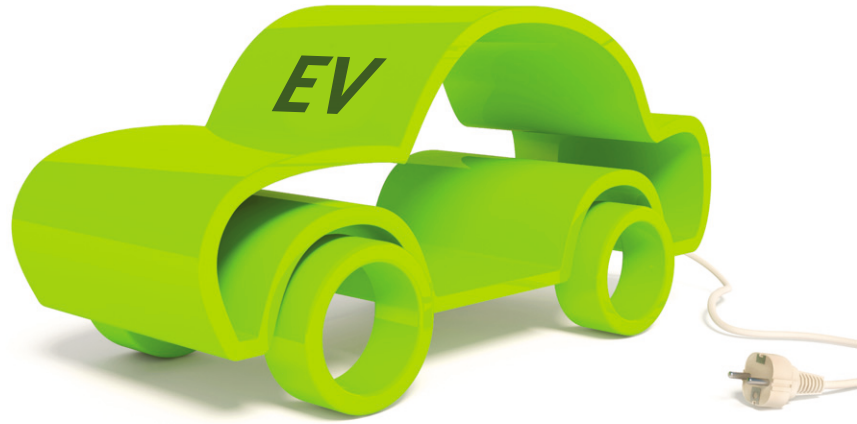


HEV의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더하여 플러그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예) GM Chevrolet Volt

### 전기모터를 구동하는 시스템 비교





## 전기자동차의 필요성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었다.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2차례의 석유파동(oil shock)은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안겼다. 이에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석유를 대체할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 전기자동차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자원고갈의 문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가속되는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점	대기오염 발생	지구온난화 문제	화석연료의 고갈	낮은 연비 개선
해결책	유해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및 아황산가스(SOx)에 대한 규제 강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 <sub>2</sub> )규제	대체에너지 개발	첨단소재를 사용한 경량화와 첨단설계를 통해 공기저항 최소화
	<b>신개념 동력시스템 개발 : 전기자동차</b>			

## 전기자동차의 연구방향

전기자동차는 무공해자동차 ZEV(Zero Emission Vehicle)로 인식되고 경제성 또한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자동차의 기술수준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부품인 배터리(Battery)와 모터(Motor)를 비롯하여 전자제어장치인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와 직류→교류 변환기인 인버터(Inverter), 교류→직류 변환기인 컨버터(Converter)와 배터리 충전기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기자동차이다. 이에 차량외부의 차체구조와 디자인에서부터 주요부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을 실용화 시킴으로서 준비하는 UNIST와 같이 기술로서 당연히 승부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만들기위해 도전 하겠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Design	신소재 적용을 통한 경량화	통합 전자제어장치 개발	Motor 혹은 Brake System 을 활용하여 상시 충전 가능한 System을 개발	Wireless 충전시스템의 개발
차량외부의 Style 변경을 통해 공기저항계수를 감소시켜 배터리 소모량을 줄임	비철금속(알루미늄, 마그네슘)이나, 플라스틱(CFRP, GFRP)을 사용하여 경량화	BMS, Inverter, Converter, 배터리 충전기를 One Package Module로 통합부피가 작고, 가벼운 제품으로 개발	주행과 동시에 전기생산이 가능한 system개발 (동력을 생산하는 Motor가 회전시 동시에 발전도 가능한 system을 개발) 및, Motor감속 시 발전 효율 향상	Plug in Charge가 아닌 Wireless 충전시스템으로 간편하고 효율적인 충전기술 개발

#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

## Slightly misquoted from Field of Dream

**Dr. Marc Madou** Chancellor's Professor UCI / WCU Scholar, UNIST



A very pretty new University campus is rising up in the hills surrounding Ulsan, South Korea. This is not any new campus! This is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enerally known as UNIST) aiming to be Korea's world-leading univers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prosperity of humankind. An ambitious and determined global vision driven home daily by the ambitious UNIST President Moo Je Cho and Vice President MooYoung Jung is now attracting top Korean and International Faculty to forge that vision into reality. With a pitch-perfect understanding about what made KAIST and POSTECH so successful in Korea these able leaders are building the next such institution; a world class university in Korea with an international flavor. POSTECH specializes in basic sciences and is pursuing a Caltech model, KAIST focuses on applied studies and takes MIT as a role model. UNIST on the other hand focuses on practical studies and researches seeking to emulate the Olin engineering school to redefine engineering as a profession of innovation while considering human and societal needs and encouraging entrepreneurial effort and philanthropy and building strong partnerships with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nd institutions. A UNIST graduate will be a leader and compete with the best graduates

anywhere in the world.

As a World Class University (WCU) Scholar I am honored to partake in this exhilarating UNIST adventure. In the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is inviting excellent scholars and researchers from around the world [my home University i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UCI)] to establish new academic projects and conduct joint research at Korean universities in the field of emerging technologies. UNIST, as young a University as it is, landed two such WCU grants. The specific WCU grant I am involved with is called "Nano Science and Technology for Advanced Diagnostics and Personalized Medicine." We won this project because of the dedicated and persistent leadership of Prof. YoonKyoung Cho, a founding faculty of UNIST with excellent science and management credentials from POSTECH and Samsung where I knew her from work on a futuristic compact-disc based diagnostic platform.

My other International colleagues in this project are Prof. Steven Allan Soper,



**Last year September I came with my senior colleague Dr. Seajin Oh (PhD , Materials Science, Stanford) and two of my senior UCI graduate students (Mr. Rodrigo Martinez and Mr. Robin Gorkin) to UNIST to kick-off the WCU project with Professor Cho.**

**My ambition for this first semester at UNIST was to teach a MEMS class, to lecture as a WCU Scholar around the country and the world, to form student collaborative teams, to start new research projects with my Korean colleagues and then to publish together**

to teach a MEMS class, to lecture as a WCU Scholar around the country and the world, to form student collaborative teams, to start new research projects with my Korean colleagues and then to publish together. The MEMS class was well received by the Korean students. We gave 16 invited WCU lectures in Korea and abroad. Dr. Oh was my Korean cultural interpreter and all around help for both our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and my UCI students became fast friends with many Korean UNIST students (in the lab as well as in extra-curricula kind of activities, see picture in the Royal Anchor, ULSAN, Dec. 2009). The student collaborative teams were crucial in getting research going in the lab and to improve the English of our Korean students. Expanding on our emphasis on students to make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work, UNIST students, both undergraduates and graduates will be visiting the Madou labs at UCI this summer, and two new UCI graduate students will join Dr. Madou at UCI this fall. In four months we started three new research areas together with Prof. Cho in the WCU context: carbon-MEMS sensors and fractals for more sensitive biosensors, electronic DNA arrays and CD fluidics with integrated electrical forces. Outside the WCU context we started collaboration on nano-electrochemical sensors with Prof. Heungjoo Shin and with Prof. Cho we also landed a Samsung project and a Korean-Swiss collaborative project on 3D dielectrophoresis for stem cell sorting. Although we already have some joint publications from our 2009 activities all the work we initiated in the fall of 2009 will start to result in many high-level papers in 2010 and beyond. Moreover from this year on my own efforts at UNIST will be amplified by the results of my other US colleagues. As a team we strive to make our WCU project the crown jewel for both UNIST and MEST.

As a final word I want to admit to my growing admiration for what South-Korea as a country continues to pull off. As other countries are sometimes a bit embittered and pessimistic in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my colleagues at UNIST and beyond just work yet harder, remain friendly, though and proud and foremost they continue to believe in more and better education as the only way forwards for humankind.

# UNIST gave me opportunity

Muhammad Fawad (International Student)



My name is Muhammad Fawad from Pakistan. Since high school, I had a dream that I'll go abroad for a higher education.

During that time two of my cousins got admissions in KAIST. They were proud about studying in Korea and that fact made me study harder than before to get the chance

just like they got, especially in one of the global leading universities. Since then, I promised myself that I'll go abroad at any cost, so I studied very hard. In Pakistan, there is a serious electricity problem and I faced electricity failure more than 12 hours a day. So at night, I had to study under a candle light. One day, I heard about UNIST from my cousin. I instantly contacted the admission office of UNIST which guided me very kindly and that forced me to submit my application. When I heard that I got accepted

at UNIST, I was full of happiness and joy. I am sure that UNIST will arise it's world ranking among other international universities of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I want to say to the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in UNIST that UNIST gave us an opportunity to improve our life and in return we must study hard and have to make every endeavor for including UNIST within the world class ranking. I hope after finishing my B.S., I will continue my M.S. and Ph.D. here at UNIST.

## Scientific and Cultural Experience here at UNIST

Swati (International Student)



I am Swati, a student from India. I chose UNIST for my doctoral study. Korea is still new for me, so jotting down

my thoughts and experiences is fairly difficult at this point. However, as a student who travelled far to get a better quality education, I would like to share a few ideas with everyone. Students who travel abroad for their higher education has several reasons. The most important, of course, is to avail quality training and understand vari-

ous techniques used worldwide to solve a scientific problem. Other factors include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aspects. Being immersed in an entirely new cultural setting is scary at first, but it is also exciting. It is an opportunity to discover new strengths and abilities, conquer new challenges, and solve new problems. Almost everyday, I encounter situations that are wholly unfamiliar to me. But they indeed help me adapt and respond in effective ways. I am becoming familiar with an entirely new academic set up and getting the chance to take up new courses and innovative research problems.

UNIST embraces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by building new bridges across old boundaries. Here, we get world class facilities in terms of availability of equipments, 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a wide range of courses taught by experienced teachers. Frequent visits by international faculty members help students to get valuable inputs on the current flow of science. It also gives the opportunity to convert your doctoral research into an international program. I hope to gain as much experience and exposure as possible, both in terms of academic and cultural aspects, while I am a Ph.D. student here.

# 리더십과 팀워크 프로그램, 학생들 큰호응

## S-Oil AI-Subaey CEO 초청특강 대성황

리더십과 팀워크 프로그램은 학점으로서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사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2주에 한 번씩 명사초청특강을 한다. 이번학기 첫 연사로 3월 11일 S-Oil의 AI-Subaey 사장을 초청하여 "A Successful Global Leader in the Making"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AI-Subaey 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기공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Stanford대학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으며 영어, 독일어, 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5개 국

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CEO다. 이날 특강은 약 한시간 동안 영어로 진행 되었으며 6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강 후에 약 50여명 학생들의 열띤 질문이 쏟아져 100% 영어강의 효과를 실감나게 했다. Subaey 사장은 Impressive를 연발하고 UNIST 졸업생이 배출되면 S-Oil에 많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다. 이번학기 초청 특강연사로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효성종합기술원 성장모 원장 등이 계획 되어있다.



UNIST-KT

# 국내 최초 꿈의 모바일캠퍼스 구축

## 스마트폰으로 LMS시스템 업그레이드

UNIST는 국내대학으로는 처음으로 KT와 손잡고 \*FMC 기반에 의한 모바일 캠퍼스 구축과 함께 전학생과 교직원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다. 캠퍼스의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폰으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접속해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으며 교수와 학생 간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종합행정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사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LMS를 통한 창의교육시스템 도입은 100%영어강의, 융합 복수트랙 의무화와 함께 UNIST의 대표브랜드다. UNIST가 LMS를 통한 창의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해 기울인 노력을 되돌아본다.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유·무선 융합을 통해 휴대폰 하나로 기존 이동전화는 물론 와이파이(Wi-Fi)무선 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외부에서는 기존 이동전화망, 무선랜이 설치된 곳에서는 O70 인터넷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 The what and why of L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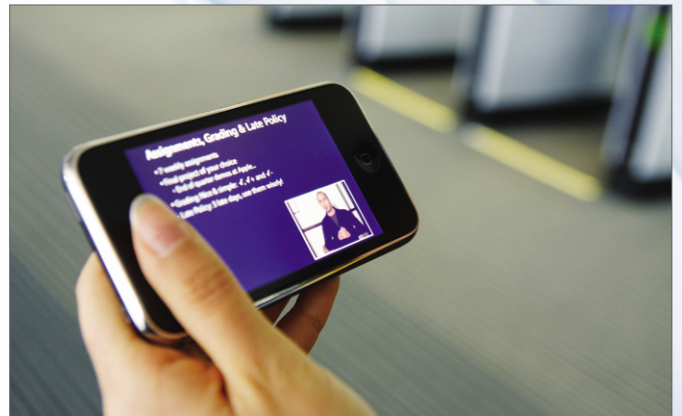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란 컴퓨터 온라인을 통하여 학습 콘텐츠의 개발과 전달, 평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교수·학습의 전반적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는 물론 출결사항 등 학사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UNIST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MS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이것이 바로 UNIST가 LMS의 일환으로 블랙보드(Blackboard)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강좌를 개설한 국내 최초의 대학이 된 배경이다.

## Yes, Blackboard installed, but for what?

블랙보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플랫폼으로 효율적인 학습 콘텐츠의 배포, 공유, 평가, 환류, 모니터링 등을 가능케 한다. 이로써 교수는 평가, 채점, 출결관리, 파일업로드 등과 같은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고 수업 질 개선과 연구활동에 시간을 활용한다. 하지만 UNIST가 LMS, 즉 블랙보드를 도입하게 된 더 큰 목적은 무엇보다 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에 있다. 예를 들어 교수가 수업에 필요한 교육 자료와 퀴즈를 수업 전에 미리 블랙보드에 올리면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예습하고 퀴즈를 통해 평가까지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교수들은 미리 학습자의 이해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는 선행학습으로 선지식을 형성하여 준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질 높은 심화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100% 영어강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밖에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각 수업 방식의 장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블랙보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I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수업을 지향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이는 UNIST가 추구하는 e-Education으로서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강의 방식을 바꾸는 작업, 즉 교과과정 재설계(Course Redesign)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Course Redesign, is it necessary?

UNIST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e-Education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e-Education Infrastructure는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개교와 함께 전 과목을 대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LMS를 구축했다 해도 방법론이 없는 학습 플랫폼은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NIST는 지난해 10월 'e-Education 추진본부'를 발족하여 전 기초과



목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재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LMS 기반의 새로운 교수모델, 교수방법 등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교과과정 재설계의 핵심은 기존 교수·학습 현황을 분석하여 IT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교육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방법의 모색과 창안에 있다. 물론 교과과정의 재설계는 끝이 없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실행과 평가 그리고 개선작업이 요구되는 일이다.

## UNIST's vision for e-Education

이렇듯 UNIST는 e-Education 추진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방식으로 창의적 교육 효과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UNIST의 e-Education은 한 차원 높은 창조적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연구발전을 통해 창의적 선진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교육계에 새롭고 신선한 교육 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e-Education은 실제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재사용성을 가지고 있고 공유와 전파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지역사회나 교육계에 확산·보급함으로써 e-Education 선도 대학으로서의 입지는 물론 세계적인 대학 교육의 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UNIST  
FAMILY

스키캠프



## 교수님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다

### UNIST 스키캠프

지난 1월 17일~20일 용평리조트에서 UNIST 학생들의 특별한 나들이가 있었다. UNIST 학생들의 좋은 여가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조용민 교수의 적극적인 권유로 UNIST 2010년 스키캠프가 열린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는 UNIST의 스키캠프를 찾아가 보았다.



## “지성과 인성이 겸비된 인재로”

알려져 있다시피 UNIST는 이제 막 2기 학생들을 선발한 신생 학교입니다. 오늘 함께 온 학생들은 1기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첫 회 졸업생이 되겠죠. 어느 기관과 집단이든 처음 시작하는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UNIST가 최고의 과학기술대학교를 지향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생들이 되겠지만 최고의 학생, 최고의 젊은이는 단순히 자신의 전공과목만을 잘 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는 취미활동도 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서는 등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좋은 전통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스키캠프를 추진했습니다. UNIST에 지원하거나 학생들을 맡기신다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키캠프는 스키 활동 뿐 아니라 '우주론 특강' 같은 과학 교양도 키울 수 있어 과학기술대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용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석좌교수

## “대학 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변정인 도시환경공학부 2학년

이번 스키캠프가 인상적인 것인 물론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교수님들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셨다는 것입니다. UNIST는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 벽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신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의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오랜 경력의 석좌교수님들까지도 그러하십니다. 친근하고 격의 없이 대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신의 전공 뿐 아니라 인생의 멘토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키동아리지만 겨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도전' 이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동아리의 목표입니다. 여름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UNIST 1기입니다. 1기라서 좋은 점은 할 것이 공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배가 없고 아직은 함께 하는 대학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기들은 사명감을 갖고 가족애로 수렴되는 다양한 대학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데 공감하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 조용민 교수의 우주론 특강

19일 저녁에 세미나룸에서는 조용민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조용민 교수는 통일장이론과 일반상대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발휘, 세계적 수준의 이론 물리학자이다. 조용민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우주론의 일반적인 설명과 그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접근을 스무 명이 채 안 되는 학생들에게 강의했다. 적은 수의 학생들, 열정적인 강의가 어우러져 집중도와 강의 밀도가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에피데믹은 힙합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연동아리입니다. 비트메이커이자 작곡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혁 회장은 작년에는 디지털 싱글앨범(Epidemic Flow, one day)을 발매하였고 공연을 위한 여러 비트를 만들고 전체적인 프로듀싱을 맡고 있습니다. 부회장인 정태풍씨는 동기들 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창립에 힘썼고, 전반적인 동아리 활동에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열정적인 감성으로 젊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힙합동아리

Epidemic(에피데믹)

동아리는 MC부, DJ부, 보컬부, 비트박스부로 나누어 활동 중입니다. MC부는 랩과 작사를 담당하고 각종 공연에서 무대에 오르는 역할을 합니다. MC부의 성광현 부장은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작사실력과 랩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과 플로우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외에도 MC부에는 동아리 연합회장 김건희씨, 가장 큰 키를 보유하고 있는 이무열씨, 아웃사이드 못지 않은 랩 이경희씨, 최고의 무대매너를 자랑하는 배종원씨, 매력적인 보이스를 지닌 남운석씨 수준 높은 가사와 랩을 지닌 정비철씨 객원으로 참여하다 정식부원이 된 정원일씨 특유에 랩 톤을 지닌 주장훈씨가 있습니다.

DJ부는 작곡과 곡의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회장 정준혁씨가 부장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외에 부원은 없습니다. 비트박스부는 원래 타 동아리였으나 같은 힙합장르로서 함께하게 되었고 비트박스 공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힙합문화에 조예가 있는 안병완 부장과 동아리의 분위기메이커인 이강택씨가 활동 중입니다. 보컬부는 각 곡에 피처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현재 부장을 비롯하여 에피데믹의 홍일점인 문수정씨, 랩퍼의 역할도 소화하는 김경모씨, 학생회장이기도 한 표수진씨가 속해 있습니다.

에피데믹은 처음에는 힙합동아리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그 폭을 확대하여 흑인 음악 전반을 즐길 수 있는 동아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비보잉과 그래피티 등에 소질이 있는 부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힙합앨범을 만드는 것을 첫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적인(Epidemic) 힙합의 매력을 보여주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소개글을 보내왔습니다.)

# 글로벌 우정을 만끽하다

UNIST 재학 해외학생 환영회



지난 3월 17일 수업이 모두 끝난 저녁 시간, UNIST의 한 강의실이 북적북적했다. UNIST에 재학하고 있는 젊은 외국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UNIST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함께 이들을 위한 환영회를 열었던 것. 외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학생 자치단체와 동아리 참여 방법 등을 소개하는 등 UNIST 학생들은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있었다.



## 세계인으로서 우정을 쌓겠습니다

UNIST 기초과정부 Mukhter Ah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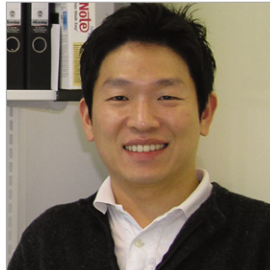
낯선 한국 땅에 와서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UNIST의 학생회가 나서서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니 더 없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UNIST 학생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세계인으로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 우수교수 채용 가속화 - 2012년까지 250명 목표

## 생명과학분야 국가석학 POSTECH 서판길교수 영입



서판길교수



김정범교수



남명수교수

UNIST에서는 우수교수 초빙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POSTECH에서 다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SCI등재학술지에 206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2007년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생명과학분야 국가석학으로 선정된 서판길 교수와 국내 무기화학분야 권위자로서 110여편의 SCI 논문을 발표한 한양대학교의 남명수 교수를 영입함과 동시에 잠재력이 뛰어난 신진교수 15명을 영입해 총 99명의 교수진을 확보하게 되었다. 신임교수 중에는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에서 지난해 4월 박사학위

를 취득하고 최근 2년 동안 제1저자로만 Nature에 2편, Cell에 2편, Nature Protocol에 1편, PNAS에 1편 등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줄기세포 분야 차세대 주자인 김정범 박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UNIST 교수진의 평균 연령은 40세로 65%는 MIT, Stanford, Georgia Tech 등에서 최종 학위를 받은 젊고 촉망받는 세계적인 학자들이다. UNIST는 2012년까지 250명의 교수 영입을 목표로 국내외 최우수 교수들을 초빙할 계획이다.

## 부부교수 3쌍 탄생

### 안정적인 생활로 연구몰입도 증가



UNIST에 3쌍의 부부교수가 탄생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1호 부부교수인 조형준(나노생명화학공학부), 최은미(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결혼, 미국 에너지기업인 솔룸베르

거에서 함께 근무하다 UNIST 교수가 되었다. 주상훈(나노생명화학공학부), 문희리(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3월 결혼한 신혼부부이다. KAIST와 서울대에서 각각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로런스 버클리국립연구소에서 함께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올해 UNIST에 임용됐다. 국제커플인 Tatar(인문사회과학분야)와 최진숙(인문사회과학분야)교수는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다 만난 국제커플로 최교수가 지난 8월 UNIST에 먼저 정착한 후, KAIST 객원교수를 지내던 Tatar 교수가 올해 뒤따라 왔다. 이들은 UNIST의 우수한 연구환경과 학생, 융합을 중시하는 교육철학 등에 끌려 주저 없이 UNIST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성과와 잠재력이 탁월하고 무엇보다 상호 협력하여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 UNIST, 국가이공계장학금 쿼터배정대학 선정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우수학생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KAIST와 POSTECH에 전체 학생의 80%를 국가이공계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쿼터를 배

정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UNIST와 GIST를 추가하여 4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배정비율은 50%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UNIST는 우수학생유치에서 KAIST, POSTECH, GIST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UNIST 방문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 3월 26일 본교를 방문하여 조무제 총장으로부터 대학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중앙실험관과 학술정보관 등 대학시설들을 둘러보

았다. 조무제 총장은 UNIST를 향후 10년 이내에 홍콩과기대수준(세계 35위), 20년 내에 MIT 수준의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현구 특보도 UNIST가 개교 1년 만에 국내 최고수준의 우수학생과 교수를 유치하고 국제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 자리잡는데 대해 격려와 함께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 정무영 부총장 Geogia Tech 방문 및 상호협력방안 협의



정무영 부총장은 테크노경영학부 이규태 교수와 함께 2월 24일 Geogia Tech을 방문하여 개리 슈스터(Gary Schuster) 부총장, 스티븐 맥로글린(Steven McLaughlin) 국제

협력처장, 비노드 싱할(Vinod Sngal) 경영대학 부학장 등과 만나 UNIST 테크노경영학부와 Geogia Tech 경영대학 간에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3월 11일 두 대학의 경영대학간 연구, 교육, 학술교류와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다.

## UNIST-KT, '모바일 캠퍼스 구축'을 위한 MOU 체결



KT 이상훈 사장이 3월 11일 UNIST를 방문하여 조무제 총장과 모바일 캠퍼스 구축을 위해 FMC 기반의 UC(Unified Communication)서비스구현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KT는 앞으로 6월말까지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UNIST 캠퍼스 내에 FMC 서비스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무선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주한외국대사관 교육담당관 초청 입학설명회 개최



UNIST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전체 학생의 약 20%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 23일 주한 외국대사관의 교육담당관을 UNIST로 초청하여 입학설명

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파나마의 Jaime Lasso del Castillo 대사를 비롯해 브라질,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우크라이나, 체코, 세르비아, 키르기스, 앙골라, 알제리, 가나, 콩고, 르완다 등 15개국이 참석해 UNIST에 큰 관심을 보였다. UNIST는 외국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 및 연구 인프라, 100% 영어강의, 융합전공 등에 대하여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이상면군, 용돈모아 대학발전기금 기탁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이상면군이 대학생활 1년간 모은 용돈 1백만원을 군입대하면서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면군은 대학생활을 하는동안 모은

용돈과 군입대 격려금으로 친지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대학발전기금으로 전달할 것이다. 이 군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학교발전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학생 및 구성원 사이에서도 학교사랑을 위한 기부 문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UNIS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학생홍보대사(UNI)

2010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에서 울산과기대의 상징색인 'UNIST RED' 컬러의 제복을 입은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UNIST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U와 학생홍보대사를 의미하는 I가 합쳐져 You&I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학생홍보대사, UNI가 바로 그들. 때로는 UNIST의 친절한 안내자로, 때로는 UNIST의 같은 눈높이의 선배로 품위를 갖추면서도 활발하게 활약할 이들을 기대한다.



## 학생홍보대사 임명식

지난 2월 11일 총장실에서 학생홍보대사 임명식이 있었다. 이날 임명식에서 조무제 총장은 UNIST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UNIST를 널리 알리자고 당부하였다.



**제1기 학생홍보대사 명단** 김아영(기장), 김성환, 김윤경, 명승준, 박상민, 정영태, 조재현, 하정윤, 허치영

#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첨단융합학문을 이끄는 UNIST의 든든한 힘이 됩니다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안내

구 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억 이상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Presidential Club	Prime Club	Prestige Club	Gold Club	Unist Club	Unistar Club
<b>공통 예우 사항</b> - 학교 홈페이지 게재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대학 기념품 증정 - 간행물 발송 - 감사 서신 발송	●	●	●	●	●	●
<b>대학시설 이용 편의 제공</b> - 학술정보관 무료 이용권 - 차량 무상 출입권 - 체육관 이용 할인권 등	●	●	●	●		
<b>기금 명칭 부여 가능</b>	●	●	●			
<b>경조카드 및 화환 발송</b>	●	●	●			
<b>주요 학교행사 초대</b>	●	●	●			
<b>총장명의 감사패 증정</b>	●	●	●			
<b>강의실에 성함 각인 동판 부착</b>			●			
<b>강당 or 대형세미나실 성함 각인 동판 부착</b>		●				
<b>건물 명칭 부여 or 기념물 제작(동상 등)</b>	●					